

경주 가뭄 비상...농어촌공사, 긴급 용수 확보 총력

✎ 황기환 기자 | ⓒ 승인 2026.08.02 17:16 | □ 9면

평년의 58% 강수량·저수율 38.7%...관정·양수시설 55곳 긴급 가동
하천수 활용·긴급 급수 확대...영농 피해 최소화 위한 가뭄 대응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지난달 29일 강동면 국당리 왕신천에 엔진양수기를 설치해 인근 농경지에 긴급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주시의 강수량이 평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지역 저수율이 하락하면서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가뭄으로 인한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락하면서 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엔진양수기 등 총 55개소의 한해대책 시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경주시의 강수량은 321.7mm를 기록해 평년 대비 58.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기인 6~7월 강수량은 90.9mm로 평년 대비 31.2%에 머무는 등 무강우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7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8.7% 수준으로 떨어져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물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수절약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용수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수저류시설 11개소, 대체급수 관정 29개소, 배수로 농업용수 재사용 15개소, 엔진양수기 35대를 긴급 설치하는 등 총 55개소에 한해대책 시설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경주소방서의 긴급 살수차 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급수차와 레미콘차 등을 임대해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 하류부에 긴급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

박기철 지사장은 “무강우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배수로 퇴수물 재사용, 신규 관정 개발 확대 등 긴급 조치해 지속적으로 가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